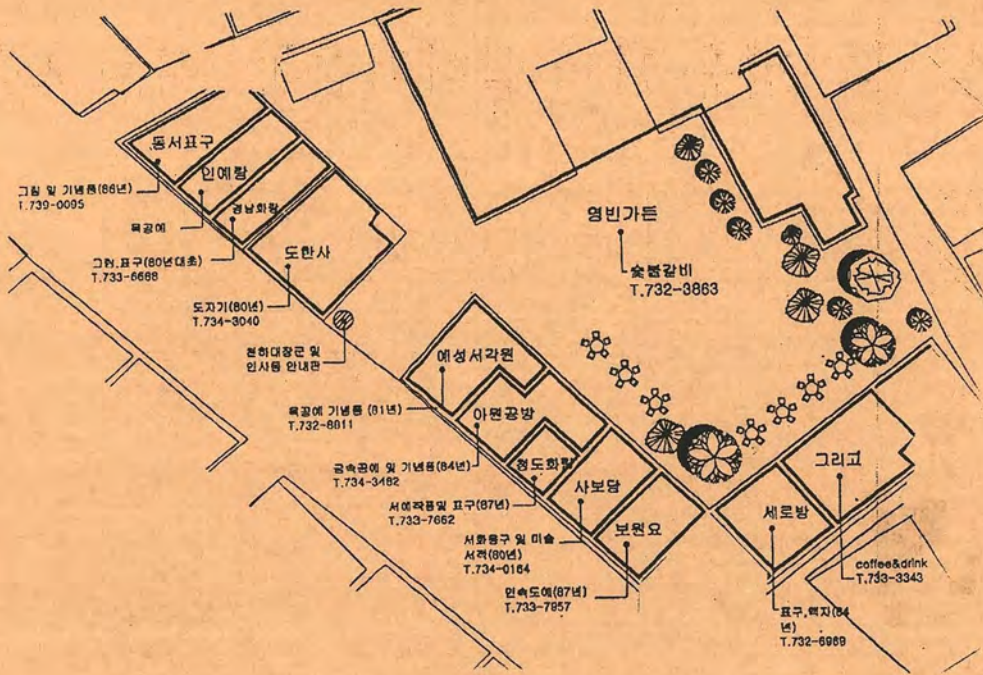


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운동』 자료모음

1999. 12. 8.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 운동의 배경 및 의의

## 배경

- 최근 인사동에서 재건축 및 상업대형화추세 속에서 작은 전통문화업소의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십년간 한곳에서 유지보존되어온 작은 가게들의 감소는 인사동의 역사문화환경과 골목, 한옥 등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인사동 800여개의 가게중 90% 정도가 임대가게로써,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별 재건축은 분양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가게들의 퇴출과 새로운 유흥소비업종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피자집, 인터넷카페 등)
- 이러한 현상들은 인사동길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450평 규모의 열두 가게땅이모건설회사에 의해 매입계약됨으로써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열두 가게는 2000년 3월까지 가게를 비워야 하지만 현재 인사동에는 이들 가게들이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여있다.
- 인사동길에서 가장 전통적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고 단일필지로는 가장 큰 규모인 열두 가게땅이 개발이익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건설회사에 의해 매입됨으로써 인사동길의 분위기가와 정취가 일거에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
- 이러한 위기상황은 인사동 전체의 작은 가게들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경기가 호전되면서 시중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인사동에서도 이들 자금과 관련된 재건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의의

- 도시의 역사문화환경과 경관은 공공적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개인이익과 공공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지이용질서 및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열두 가게를 유지보존하는 운동을 통해 인사동의 역사문화환경과 도시경관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및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그간 경과

### 열두 가게 살리기 대책회의

- 11월 5일 열두 가게부지의 매입계약이 통보되면서 도시연대측과 열두 가게 연석회의
- 열두 가게살리기 시민서명운동, 가게들 전면에 열두 가게 살리기 현수막 부착을 결정함

### 시민서명운동 전개

- 11월 7일 종로연대 발족을 계기로 매주 토,일요일 오후 시민서명운동
- 현재까지 6회 1만 5천여명의 시민이 서명

### 서울시에 대해 열두 가게 살리기를 위한 중재요청 및 경관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대책 수립 요청

- 도시연대측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의 면담
- 서울시는 중재 및 재건축 억제대책 검토에 들어감

##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 공식출범 준비

### 사회종교인사·문화예술인·도시전문가 및 지식인 261인의 공동성명서 발표

- 각계 인사 261인 공동의 인사동 작은 가게 및 열두 가게살리기 성명서 발표 (명단 : 첨부자료 참조)

### 열두 가게 살리기 시민청원

- 11월 7일부터 시작된 시민서명을 통한 청원운동 전개
-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에게 인사동 열두 가게를 살릴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민 15,131명의 청원서 접수

## 작은 가게살리기운동 출범 및 향후 활동계획

### 도시연대 『작은 가게 살리기운동』 공식출범식 및 시민10만명 서명운동

- 12월 8일 오후 5시 인사동 영빈가든 마당에서 작은 가게 살리기운동 공식출범
- 12월 8일을 기점으로 시민 10만명 서명운동 전개

### 인사동 상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지역토론회 개최

- 인사동 가게 상인 221명을 대상으로 차없는 거리 시행 이후의 효과, 최근 재건축추세에 대한 의식,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에 대한 의견조사 등에 대해 11월 중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지역토론회 개최 예정

### PC통신을 이용한 네티즌과의 연대활동

- 인사동살리기를 위한 토론방 개설
- 네티즌들의 서명운동 전개

## 인사동길 열두 가게를 살려야 합니다

인사동길의 생명은 800여개가 넘는 수많은 「작은 가게」들입니다. 길과 어우러지면서 빼곡히 들어차서 인사동을 인사동답게 만들어 왔습니다.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는 유흥소비업종의 유혹을 뿌리치고, 땀겨는 3대동안 적게는 수십년동안 한자리에 머물면서 역사문화환경을 가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가게」는 하나들 인사동길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서너 개의 전통문화가게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의 인터넷 카페가 들어서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땅값도 IMF에 아랑곳 없이 올라갑니다. 알팍한 상흔과 개발에 대한 기대가 인사동길 위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인사동이 주말이면 10만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작은 가게」들은 발붙일 곳을 잃어갑니다.

90%가 세입자인 「작은 가게」들은 개발자가 추진하는 재건축과 상점 대형화때문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급기야 인사동길 허리에 있는 열두가게(동서표구사~인예랑~경남화랑~도한사~영빈가든~예성서각사~아원공방~청도화랑~사보당~보원요~세로방~찾집 그리고)는 2000년 3월까지 가게를 비우고 어디론가 떠나야 합니다. 이곳마저 헐리고 현대식 빌딩이 지어지면 인사동길의 정취와 분위기는 크게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가장 인사동다운 곳이자 인사동길의 요충인 이곳이 개발되면 그 악영향은 인사동길 전체와 골목안까지 파급될 게 분명합니다.

인사동을 살리는 길은 「작은 가게」들을 살리는데서 시작됩니다. 「작은 가게」들이 인사동에서 그 다양성과 끈질긴 생명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동길 허리에 있는 열두가게부터 살려야 합니다.

11월 중순이 되면 서울시는 인사동길을 역사문화탐방로로 조성하여 그 분위기와 정취를 유지보존하기 위해 내년 8월까지 10개월간의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사동의 현실과 동떨어진 거리 정비는 오히려 인사동을 망쳐 놓을 것입니다. 정비된 거리에서 「작은가게」들은 높은 임대료와 새로운 개발에 놀려 더욱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사동의 이미지와 문화적 생명력인 「작은 가게」들이 밀려난 자리는 개발자에 의해 사유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인사동은 몇몇 대형화된 상점 이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획일화되어 시민과 외국방문객들로부터 외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인사동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인사동의 역사문화환경이 사유재산권과 개발이익으로 훼손 당하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인사동을 가꾸고 지켜온 『작은 가게』들이야말로 거리정비와 개발의 진정한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찌들고 지친 삶의 불순물을 걸러주면서 활기와 여유를 불어넣는 『작은 가게』들이 도시의 깃벌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인사동길 열두가게 살리기와 『작은 가게』살리기에 동참하여 마침내 시민 모두의 인사동을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 우리의 ● 입장과 ● 향후 ● 활동계획

1. 서울시는 인사동 현실을 도외시한 거리정비 시기를 연기하고, 인사동길의 『열두가게』살리기 대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2. 시민과 함께 『열두가게』살리기 시민서명운동과 동시에, 『열두가게』전면에 항의 현수막 부착, 지역내 지지서명운동 등을 무기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1999. 11. 7

인사동 작은가게 사람들 모임 / 도시연대

## 인사동길 작은 가게 살리기를 위한 공동성명서

600년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는 인사동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옛골목, 한옥들과 어우러져서 수십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800 여개의 작은 가게들이 재건축과 상점대형화로 사라져가고 있다. 이들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면 인사동의 역사문화환경과 이미지도 더 이상 유지보존될 수 없다.

우리는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찾는 전통문화의 명소로 인사동을 가꾸어온 작은 가게들이 상업주의와 개발이익에 밀려 사라지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최근에는 인사동길 한가운데 있는 열두 가게(동서표구사~인예랑~경남화랑~도한사~영빈가든~예성서각사~아원공방~청도화랑~사보당~보원요~세로방~ 찻집 그리고)마저 2000년 3월이면 헐릴 운명에 처해있다. 인사동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자 가장 큰 필지인 이곳이 잘못 개발되면, 인사동의 생명력과 이미지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그 결과, 가장 인사동다운 곳이 사라지고 인사동 전체가 다른 상업공간과 마찬가지로 모습으로 변모되고 말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과 경제논리만을 생각한 나머지, 후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역사문화적 유산과 도시경관들을 송두리째 허물어버렸다. 서울의 깃털, 살아있는 거리의 박물관으로 평가받는 인사동과 종로 북촌지역마저 사라지게 방치해둘 수 없다.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토지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행사되어온 지난 시대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인사동의 마지막 보루, 작은 가게를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다.

이제 개인과 공공의 이익, 경제적 이익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인사동 및 종로 북촌의 유지보존은 그 시금석이다. 이를 통해 서울이 사람과 자본이 공존하고 역사문화가 살아숨쉬는 삶터로서의 장소성을 회복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을 고향이라 여기며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인사동의 작은 가게 살리기운동은 서울을 서울답게, 종로를 종로답게 가꾸어가는 첫걸음이다. 인사동의 생명인 작은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곧 허물어질 위기에 처한 열두 가게부터 살려내야 한다. 땅을 매입계약한 개발자와 소유주는 시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인사동의 작은 가게들과 역사문화환경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되어 더 이상 시민들이 인사동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작은 가게 살리기운동이 도시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터로 가꾸어가는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9.12.1

## 사회종교인사 · 문화예술인 · 지식인 및 도시전문가 261인

강만홍 (연극인) 강병기 (구미1대학 학장) 강순형 (국립해양박물관 관장) 강영희 (문화평론가)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강행복 (판화가) 강현수 (충부대 교수) 권오성 (GF 대표)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권진관(목사) 권탄준 (동국대 교수) 권호성 (뮤지컬 연출가) 김광식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원장) 김광식(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금화 (인간문화재) 김대환 (타악연주가) 김대현 (영화감독) 김무곤 (동국대 교수) 김석중 (경향신문 X매거진팀 팀장) 김성균 (서울대 농생대 교수) 김세용 (대진대 교수) 김수규 (서울YMCA 회장) 김연갑 (한민족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 김영언(언론인) 김옥철 (안그라픽스 대표) 김용기 (화가) 김용복 (한일장신대 총장)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 김용호 (성공회대 교수) 김우창 (고려대 교수)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진국 (변호사)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 김찬호 (연세대 월드컵문화연구소 소장)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 김창수 (인도음악가) 김창완 (가수) 김호근 (서울예술대학 교수) 김홍식 (명지대 교수) 김화영(문학평론가) 나효우 (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사무처장)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노승대 (한울문화원 원장) 류인철(메카디자인 대표) 무세중 (대동극회 대표) 박근원(한신대 교수) 박병천 (인간문화재) 박영미 (ACK 대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인경 (한마음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박인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박인식 (산악인) 박형규 (목사) 배기목 (대진대 교수) 배평모 (소설가) 성석재 (소설가)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송도영 (서울시립대 교수) 송순현 (월간「정신세계」발행인) 송인호 (서울시립대 교수) 신명덕 (장승조각가) 신종원 (서울YMCA 사회개발부 부장) 신태수 (금융인) 심우성 (민속학자) 여진구 (서울녹색시민위원회 사무국장) 오봉환 (언론인) 오주현 (금융인) 오충일 (목사) 원장현 (국악인)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유재천 (한림대 교수) 윤열수 (문화재 전문위원) 윤희정 (평택대 교수) 이광일 (목사) 이구영 (한학자) 이근복 (목사) 이나미 (스튜디오 바프 대표)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동범 (21세기 동국여지승람 발행인) 이만주 (월간「열린생각」전무) 이문재 (문학동네 편집장) 이범형 (영화감독) 이상구 (경기대 교수)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이성환 (국민대 교수) 이세용 (역사탐방연구회 회장) 이용철 (변호사) 이정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재현 (언론인) 이태주 (연극평론가) 이택돈 (변호사) 이현익 (중앙일보 문화부장) 이형모 (시민의 신문 대표) 이혜림 (겨레문화답사연합 대표) 인병선 (짚풀생활사 박물관 관장) 임영주 (민학회 회장) 임창복 (성균관대 교수) 장성룡 (목사) 장완익 (변호사) 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 장일세 (금융인) 장창원 (목사) 전유성 (방송인) 전용휘 (peace net 대표) 전해철 (변호사) 정관용 (시사평론가) 정수복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정연순 (변호사) 정희섭 (문화연대 사무처장) 조경한 (문화기획가) 조건영 (건축가) 조명래 (단국대 교수) 조병준(시인) 조선희(씨네21 편집장) 조자용 (삼신학회 회장) 조화순 (목사) 조희연 (성공회신학대 교수) 주종연 (국민대 교수) 지두환 (국민대 교수) 진양교 (서울시립대 교수) 진영선 (고려대 교수) 차승재 (우노필름 대표) 최도영 (방송인) 최승환 (금융인) 최병선 (경원대 교수) 최봉수 (동국대 교수)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정한 (도시연대 사무총장) 하성규 (중앙대 교수) 허경구 (국제문제연구회 이사장) 홍성현 (목사) 홍귀숙 (대관령박물관 관장) 황청원(시인)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원택스님 (총무부장) 지원스님 (기획실장) 자승스님(재무부장) 일철스님(문화부장) 양산스님(사회부장) 종지스님(호법부장) 혜완스님 (사서실장) 증현스님 (총무국장) 진효스님 (감사국장) 성효스님 (재정국장) 태진스님 (문화국장) 정념스님 (사회국장) 법승스님 (호법국장) 석청스님 (조사국장) 자현스님 적연스님 윤광스님 심우스님 덕문스님 무주스님 지정스님 지학스님 조종래 이석심 김유신 윤영희 함동철 황충기 류옥자 주상숙 김영미 황찬익 진준호 이상봉 황철기 박종학 설동철 조한곤 양재원 임성희 방광일 조택동 강의석 김영주 심원섭 조영희 신현주 전형근 홍민석 윤승환 김용구 이영선 이상규 인성호 김현권 조계완 박찬미 김범정 박상희 주상한 김미숙 박진현 정한신 전인동 조여경 정현주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현진스님 (포교부장) 법경스님 (포교국장) 동윤스님 (연수국장) 서운스님(연구실장) 병성스님 (사무국장) 유지호 김관태 김병주 정미자 박정규 류창무 양진수 이상근 김정호 조양희 조명희 송호준

###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계성스님 (교육부장) 견진스님 (교육국장) 정행스님 (연수국장) 도원스님 (연구소장) 지완스님 (사무국장) 효탄스님 (연구위원) 고명석 박희승 박용규 박종현 박성수 전창훈 권상혁 신학녀 지정학 장영욱

###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지홍스님 (주지) 지현스님 (총무국장) 원명스님 (기획국장) 원호스님 (사회국장) 본오스님 (포교국장) 김영일 김상기 이종현 이세용 강환국 김응수 이근혜 김경석 김미경 진선미 김정란 박현조 김재수 이연숙 이수경 박민정 손영희 금은수 박기철 방용덕 최인석 이은숙

# 도시연대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우)121-190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28 / 전화 332-6044 / 전송 332-6010

시행일자 : 1999. 12. 1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문화관광국  
 발 신 : 도시연대 사무처

선 결			지 시		
접 수	일 자 시 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인사동길 열두 가게 살리기 시민청원

## 1. 안녕하십니까.

2. 저희 도시연대는 시민의 손으로 서울을 서울답게 가꾸고 만들어가는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도 600년 서울의 역사문화와 삶이 담겨있는 종로 북촌, 특히 인사동의 역사 문화환경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시민참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인사동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상점대형화, 유흥소 비업종의 침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과 경관, 이미지가 날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인사동길 한 가운데의 동서표구사~인예랑~경남화랑~도한사~영빈가든~예성서각사~아원공방~청도화랑~사보당~보원요~세로방~찻집 그리고 등 열두 가게의 땅이 한 건설회사에 팔려 2000년 3월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 열두 가게는 인사동에서 단일필지로는 최대규모이며, 인사동의 전통적 경관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중심지입니다. 만일 이곳이 재건축된다면 인사동길 한가운데의 경관과 정취가 일거에 무너지고 그 파급효과는 인사동 전체로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인사동은 머지않아 그 모습을 잃고 현대화된 다른 상업공간과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막대한 시민세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동길 역사문화탐방길 조성도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과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인사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열두 가게부터 살려야 한다는 점

을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도시연대는 11월 7일부터 인사동 유지보존과 열두 가게 살리기 시민서명에 돌입하여 현재 시민 및 외국방문객 1만 5천 131명의 동참을 끌어내었습니다. 도시연대는 이 뜻을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인사동의 생명인 작은 가게들과 당장 사라질 처지에 놓인 열두 가게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아울러, 내년 7월 이후 예정되어 있는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시기까지 인사동에서의 무분별한 재건축 등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

1. 사회종교인사, 문화술인, 도시전문가 및 지식인 공동의 작은 가게 살리기 261인 공동성명서
2. 시민 15,131명의 시민서명용지
3. 홍보전단 : 인사동길 열두 가게를 살려야 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견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 신문기사모음



## “인사동길 개발 안될말”

빌딩 신축 추진...전통상점 12곳 쫓겨날판  
시민단체 “전통보전 역행” 서명운동 돌입

화랑·찻집 등 8백여개의 작은 가게들로 이뤄진 서울 인사동길의 한 축이 허물어질 조짐을 보이자 시민단체 등이 ‘인사동길 보존’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발단은 인사동길 한가운데에 위치한 4백여평의 땅과 부속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이 지역의 ‘현대식 개발’이 불가피하게 된 것.

P출판사 사장 A씨 등은 최근 이 토지를 건축업자에게 매각했다. 이에 따라 고풍스런 인사동길의 맛과 정취를 더하게 했던 화랑·골동품 가게·찻집 등 12가게는 내년 3월까지 자리를 비워야 한다. 이들이 비운 자리에는 토지매입자들이 현대식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종로연대

는 “건물 신축 등 개발이 이뤄질 경우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길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명운동 등을 통해 토지매각 반대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종로연대는 인사동길 등 종로의 역사 문화와 도시경관 보존을 위해 도시연대·서울YMCA·인사전통문화보존회·조계사 등 4개 단체가 함께 발족한 단체다.

다음달부터 하수관 개량공사·도로 재포장·옥의 광고물 정비 등을 시작해 내년 7월까지 인사동길을 역사문화탐방로로 조성하려 했던 서울시도 난처해졌다.

이번 개발건을 시작으로 인사동길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당초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한 매매계약에 강제 행정력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러나 인사동길의 보존을 위해 매각유보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P출판사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에게 땅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며 “매입자도 인사동길의 특성을 감안해 개발을 시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kk@joongang.co.kr>

一事一言

인사동의 S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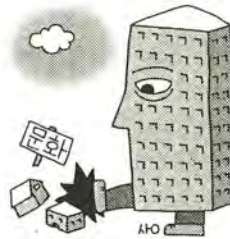
땅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그 속에 뿌리 내린 것이면 잡초건 고추건 가리지 않고 고루 키운다.

하지만 돈 독이 오른 땅은 그렇지 않다. 그런 땅은 여지없이 돈 편으로 돌아선다. 지금 인사동이 그러하다.

○ ○

지난 60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인사동은 '한국 전통문화의 깃발'로 불린다. 그런 인사동에 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모순되게도 전통문화보존차원에서 휴일날 차없는 거리를 시행한 97년 4월부터다. 그 즈음 인사동은 주말에만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최고의 장사목으로 떠올랐다.

그런 곳에는 돈 거품이 일기 마련이다. 땅값과 집세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자 그동안 강



남을 쳐다보던 대자본의 침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인사동을 인사동답게 만들어왔던 작은 가게를 여럿 사들여 대형화하는 합필(合筆) 개발에 혈안이 되었다. 전에 없던 현대식의 큰 건물들이 여기 저기 솟아오르며 이곳 업종 수를 현저하게 줄여 놓았다. 2~4 배로 오른 집세를 감당하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유흥업 뿐이다. 그런 유흥업소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지난 20~30년간 업종전환하지 않은 인사동 지킴이들의 작은 가게들을 인사동에서 쫓아내는 '인사동 죽이기'의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

“나에게만 소중한 일이라면 그걸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양드레 말로의 이 말을 자신의 가슴으로 외칠 수 있는 시민 운동가들만이 땅의 변질을 막아낼 수 있다. 그들을 향해 인사동의 작은 가게 주인들은 핏빛 절규의 'SOS'를 보내고 있다. /박인식·산악인·소설가

수도권

# 전통 枯死... 위기의 거리, 인사동

## 심층 리포트 수도권 리포트

서울의 대표적 전통문화 거리인 인사동이 위기에 처했다. 인사동은 좁은 골목길과 한옥 사이로 옛 정취가 그윽한 800여개의 목공예점 고서점 화방 골동품점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생동하는 문화공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 거리인 이곳이 재건축과 상업화 바람에 협공 당하고 있다.

■ 개발 실태 안국동 로터리에서 인사동길을 따라 150여m를 내려가면 수도약국이 나온다. 이곳에 조금 못미쳐 왼편으로 동서표구사를 시작으로 목공예점, 도자기점 등 12개의 작은 가게들이 즐지어 있다. 인사동의 중심가에 해당하는 이곳에 80년대부터 동지를 튼 12가게들은 내년 3월말이면 문을 닫아야 한다. 건물주가 이 곳 440여평을 모건설회사에 팔았기 때문이다. 건설회사는 『인사동의 분위기에 맞게 개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 건너 맞은편에는 지상 7층짜리 인사아트센터 건물의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골조공사를 마친 이 곳은 전시장과 공연장, 일반 음식점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다시 수도약국을 조금 지나 옛 동방별곡 자리의 181평 대지에도 6층 건물이 세워질 예정이다. 건축주는 근린생활 시설과 전시장 용도로 지난달 건축허가신청을 종로구청에 냈다. 이곳에서부터 길 건너 맞은 편에는 이미 4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 ★지도참조

■ 문제점 낮은 한옥들 사이로 현대식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가장 한국적이라는 인사동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 신축 건물은 그 자리에 있던 기존의 작은 가게를 몰아내는 것은 물론, 임대료와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벌이'가 신통치 않은 다른 전통 문화상점마저 내쫓는 악순환을 부르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현대식 고층건물 대부분이 근



### 고층건물들 속속 등장 재건축·상업화바람 협공 전통 12가게도 헐릴 예정

재개발에 밀려 헐릴 운명에 있는 12가게를 살리기위해 인사동의 가게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원유현기자

린 생활시설로 지어지고 있는 점. 근린 생활시설에는 건축법상 카페와 노래방 음식점 술집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입주할 수 있다. 이미 인사동에는 문구사등 3곳의 가게가 헐리고, 그 자리에 인터넷 카페가 생겼고,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까지 임접해 상업화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 대책 서울시는 인사동을 내년 상반기까지 역사문화방장으로 만들 계획이지만 당장 재건축 불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사동지역은 89년 도시설계예정지구로 지정돼 도로변은 4층16m, 안쪽

의 한옥지대는 2층 8m이내로 건물을 짓도록 행정지도가 이뤄지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인사동을 도시설계지구로 확정, 고층건물 신축을 막도록 했으나, 지정권자인 관할 종로구청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도시연대 최정한(崔廷漢)사무총장은 『12가게가 헐리면 인사동의 얼굴이 사라지는 꼴』이라며 『당장 한시적이라도 건축허가제한을 실시, 재건축바람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 인사동 '옛문화' 사라진다

도예·표구점·화랑 즐기고  
카페·바등 속속 들어서

서울 인사동길(안국동 로터리~탑골공원 입구)이 옛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골동품점·화랑·필방·표구점 등 야기자기한 공간이 허물어지고 인터넷카페·피자집 등 '청담동류'의 최신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원형파괴' = 인사동길 한쪽, 관훈동 188번지에는 '21세기 인사동의 새명소'를 표방하는 지상 6층·지하 3층의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 여타 건물들이 높아야 3층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고층빌딩'이 들어서서 썩이다. 여기 있던 도예점·화랑은 사라지고 카페·바·공연장을 갖춘 복합건물로 탈바꿈된다.

그 맞은 편 관훈동 50번지 한옥 영빈가든(한식집)을 포함해 이 일대 4백50평에 들어선 표구점·화랑·도예점 등 가게 12곳의 임대 상인들은 요즘 몹시 불안하다. 모 건설업체가 1백10억원에 이 주변을 모조리 사들여 곧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동서표구화랑 나정수(羅正洙)씨는 "인사동길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이곳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옛모습은 흔적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안국동 로터리~인사동 네거리가 '현재진행형'으로 파괴 중이라면 인사동네거리~탑골공원 입구는 이미 옛 모습을 상당부분 잃어버렸다. 15층짜리 대형 업무빌딩이 인사동길 입구를 짓누르고 있는가 하면 게임장·편의점·술집 등이 점령해 이미 평범한 유흥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손 놓은 당국 = 원형파괴가 가속화하고 있어도 서울시와 종로구는 "주민(토지주)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억제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국의 보존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은 89년에 도시설계 예정지구로 지정해 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정식 지구지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사동 일대 건축허가 현황

허가일자	건물위치	층수(지하)	용도	비고
97. 4. 8	관훈동192-10	4(1)	근린생활	97.10.14 준공
4.21	" 30-1	1	전시	미준공
8.26	" 30-8	3(1)	근린생활·전시	98. 9.24 준공
10.22	" 188	6(3)	근린·업무·전시	미준공
98. 6.30	" 84-14	3(1)	대중음식점·업무	99. 4.12 착공
99. 3. 6	" 30-9, 31	3(1)	근린·전시	99. 9. 8 준공
3.19	" 170	3	전시	9.21 "
3.19	" 171	3	전시	9.21 "
4.10	인사동186	4(1)	근린	9.21 "
6.24	관훈동30-3, 4, 5	3	근린	미착공
9.24	" 192-35	4(1)	근린	공사중
11.25	" 21의	6(3)	근린·전시	허가신청중

자료제공=서울 종로구(97~99, 11)

점이다.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외형·높이·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도시설계지구를 속히 지정하고 동시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문화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옛모습 파괴' 당국 뒷짐 시민단체만 보존 목소리

◇시민이 나섰다 = 도시연대와 영빈가든 일대 12곳의 전통가게 임대상인들이 주축이 돼 지난달 초부터 '작은 가게 살리기 10만인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한달만에 1만 5천여명이 서명했다.

도시연대 최정화 사무총장은 "도시설계지구와 문화지구 지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건축행위를 당분간 제한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통 가게의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특단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전통문화 거리의 서울 인사동길에 고층건물 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원형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왼쪽은 인사동길 열두가게 살리기 서명운동 장면. 박종근 기자



## 논단

**강내희**      중앙대 교수·영문학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재개발이 서울 도심의 문화환경을 망치고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공간정책이 재산권 보호에만 바빠 도시공간의 미적 질서나 공공성을 외면한 결과다. 소유권 행사는 개인의 권리이긴 하지만 남용하면 도시의 공공기반과 문화 터전을 허무는 공공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서울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인사동의 요즘 모습을 보면 개인 재산권만 중시하는 재개발이 문화환경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인사동에는 지금 대형건물이 점령군처럼 쳐들어오고 있다. 몇해 전부터 안국동·종로·낙원동·관훈동 방향 들머리에 고층건물들이 위세를 뽐내며 잇따라 들어서더니 최근에는 동네 안까지 넘보는 중이다. 머잖아 인사동 중심거리도 동강남 관이라 한다. 인사동길 허리 부분에서 작은 가게 열두개를 보듬고 있는 450평 가까운 땅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팔려 대형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허리가 동강남 참이니 인사동은 이제 죽게 생겼다. 야트막한 한옥들이 응기종기 모여 옛고를 모습을 간직해온 인사동의 경관과 문화적 정취도 그래서 옛이야기가 될 운명이다.

문제의 재개발이 본격화한 것은 엉뚱하게도 인사동 보존을 위한다는 노력 결과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존운동이 '돈독'에 오염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97년부터 '자동차 없는 거리' 행사가 벌어져 주말이면 수만 인파가 몰려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문화환경 개선보다는 돈벌이 기회로만 보고 부동산 개발에 더욱 혈안이 된 것이다.

## 인사동의 문화적 선택

800여 작은 가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사동에 고층건물 숲이 들어선다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도시의 상징은 고층빌딩이라 하지만 고층빌딩이 도시 문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도시의 실질적 생명선은 '사람 사는 정'을 일깨우는 골목들이다. 획일화한 현대 도시에 경이와 여유를 만들어내는 실핏줄 구실을 하는 것이 골목인 것이다. 이 골목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작은 집들, 작은 가게들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울망졸망한 가게들과 좁은 골목길은 하찮아 보일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삶과 활동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생태계의 활력소다.

반면에 대형건물은 이 생태계를 짓밟는 터미네이터에 가깝다. 작은 가게와 골목들이 대형건물에 짓밟히고 나면 인사동은 더는 도심에 활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문화적 폐허로 바뀔 것이다. 골목 어귀의 화랑을 백화점이, 고서점과 도자기 가게를 카페와 노래방이, 담소와 산보를 위한 골목길을 엘리베이터와 사무실이 대체한 인사동을 생각해 보라.

인사동이 명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적 활동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 오랫동안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면 인사동은 그 정취와 활력을 잃고 서울의 다른 곳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된다. 물론 인파도 사라질 것이다. 문화적 폐허가 된 인사동에 사람들이 왜 오겠는가.

서울시는 얼마 전 서울을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자동차 물결에 거리를 빼앗긴 시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골목길과 작은 가게들을 없애고도 걷고 싶은 서울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서울시는 도심 공간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사동 발전정책이 재개발 사업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작은 골목과 가게들을 살려서 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인사동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화적 선택을 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

## 外言內言

## 인사동 길

현대도시들은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설계되지만 구불구불 아기자기한 골목길에 사람들은 향수를 느낀다. 역사의 향기가 났 골목은 그래서 관광명소가 된다. 유럽 관광안내 책자들은 그런 골목을 빼놓지 않고 소개한다. 그 고장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생활상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 때문이다. 스톡홀름 구(舊)시가지의 감라스탄처럼 골목길이 얼마나 좁은가가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에는 인사동이라는 멋진 골목이 있다.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에서 종로2가 탐골공원 3거리까지 약 1km에 이르는 길이다. 이 길을 등줄기 삼아 양옆으로 미로처럼 뻗어 있는 20여개의 좁은 뒷골목까지 포함해서 흔히 '인사동길' '인사동 골목'으로 부른다. 화랑과 골동품점·필방·표구점·전통차집·한식집 등이 고만고만한 규모로 오밀조밀 늘어서 있어 서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옛맛을 간직한 이곳은 이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방문한 명소다.

그러나 이 전통문화 거리의 앞날은 불확실하다. 건물 주인이나 땅 주인이 바뀌면 전자오락실이나 호프집이 들어서는 등 거리 모습이 바뀌기 때문이다. 인사동 골목의 집들 가운데 약 70%가 한옥이지만 가회동처럼 보호대상은 아니다. 게다가 당국마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좁은 골목길을 넓히고 막힌 골목을 뚫어 '시민들의 통행편의'를 돕는다는 엉뚱한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계획은 시민단체와 지역상인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지만 인사동의 불안한 앞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사동길 등줄기 한복판에 있는 400여평의 땅과 부속건물이 최근 팔려나가 이 지역의 '현대적 개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일고 있다. 이곳에 자리잡은 전통문화 업소 12곳이 내년 3월까지 가게를 비워야 하게 됐다. 현대적 빌딩이 들어서면 임대료가 오르기 때문에 화랑·골동

품 가게 등이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인사동 모습이 바뀌어가면 인사동이 그 정취를 잃게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개발이란 명목으로 인사동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서 인사동의 땅입자나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방법은 없다. 고작해야 고도제한 규정에 따

라 5층 이상 건물만 못지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지난 일요일 인사동에서는 종로연대 발대식이 있었다. 서울YMCA·인사전통문화보존회·도시연대·조계사 등 종로에 뿌리를 내린 4개 단체로 구성된 종로연대는 인사동을 포함한 서울 북촌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 우리 아이들이 서울을 고향이라 부를 수 있게 하려 한다. 그 활동에 우선 기대해본다. 아울러 당국도 인사동을 지키는 것이 개인 재산권을 더욱 보호받는 길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任英淑 논설위원  
ysi@k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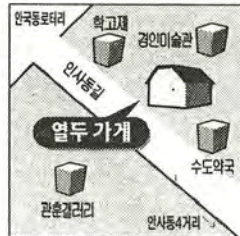


99년 12월 2일 목요일

### ■ '작은가게 살리기 운동' 인사동일대 12곳 재건축 거부운동

작은 상가의 재건축과 대형화 바람이 부는 서울 인사동 일대에 최근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도시연대(사무총장 최정현)는 지난달부터 인사동 유지보존과 열 두 가게 살리기 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모두 1만5천1백31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연대는 8일 오후 5시 인사동 영빈가든 마당에서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 출범식을 가질 예



### 시민 1만5천여명 서명 개발후 유흥업소등 난립 문화적가치 상실 불보듯

정이다. 인사동길에 있는 450평 규모의 열 두 가게는 지난 달 0사에 매입계약돼 내년 3월 재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연대와 상인들은 이같은 방식의 개별적인 재건축은 분양·임대료 상승에 따른 기존 업종의 퇴출과 유흥소비업종 등장으로 이어져 인사동은 고유의 역사문화환경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종교인사·문화예술·도시전문가 등 261명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인사동의 작은 가게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자존심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연대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호기기자

# '600년 서울역사 전통 살아숨쉬는 종로에 새생명을'

## 시민단체 모임 '종로연대'

인사동을 안고있는 서울 종로민들 시민들의 정겨운 휴식처가 또 있을까. 차마와 차마가 달을 뜻한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들. 그 틈 구석구석에 자리한 800여개의 작은 가게들과 그곳에 들어찬 온갖 물건들, 저마다 특색있는 찻집과 음식점들. 인사동엔 600여년이란 시간이 더듬더듬 쌓여 색다른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사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곳을 항상 신선한 공기를 내뿜는 '서울의 허파', 언제나 맑은 물을 뿜어내는 '물달샘'이라고 말한다. 인사동에서 만난 회사원 김정기씨(34)는 '시골 외할머니 댁에 온 듯한 아늑하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는다. 그는 김씨는 '수백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없게 모르게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분석해 낸다.

평일에 평균 2만~3만명이 인사동을 찾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7만여명까지 몰려들어 곳곳을 누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꼭 들러가는 서울의 명소. 인사동 일대가 이미 몇몇 광 주권이나 가게 세입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 공동의 공간이라는 의미다.

최근 인사동을 포함한 종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제대로 된 종로를 만들자는 사람들이 나왔다. '시민의 손으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종로를 보존하고 가꾸자'는 시민 단체들의 모임 '종로연대'. 이들은 인



체를 찾겠다는 내용.

각 단체장들이 공동대표를 맡은 종로연대는 앞으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의 구성체로 삼을 계획. 종로를 아끼는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종로연대의 활동방향과 계획 등을 심의하게 된다. 도시연대 최정환 사무총장을 현직 실무자들이 이끌기 실행위원회의위원장으로, YMCA 신종원 사회개발부장, 조계사 김영일 총무실장 등을 위원으로 뽑았다.

종로연대는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종로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연구해 종로를 '걷고싶은 거리'로 바꾸는 활동에 나서게 된다. 또 고층·고밀도를 추구하는 재개발·재건축을 대어 오려낸 작은 가게와 옛길, 한옥 등으로 이뤄진 종로 북촌(北村) 지역의 경관을 보존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마련하고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행사도 벌인다.

11월 중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워크숍을 가질 계획. 이미 이 일대의 업종·건축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설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인사동 일구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지하철공사와 함께 '문화센터'를 조성기로 하고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달 중 선보일 문화센터는 20여명 규모, 종로의 거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최위원장(43)은 '종로연대의 성패는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달렸다'며 '종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시대기자 jaeklee@yungwang.com

## 종로연대 S.O.S

### "인사동 열두 가게를 살려라"

「인사동 길의 열두 가게를 살려주세요」 종로연대가 출범하자마자 먼저진 첫 숙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사동 한복판의 가게 열두 곳을 살려내는 일. 종로연대 관계자들은 이를 '열두 가게 사건'이라 부르며 소성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출판사 사장이 소유한 인사동내 400여명의 대지와 부속 건물이 건축업자에게 매각되면서 벌어졌다. 그 자리에 있던 화랑·공동체 가게·찻집 등 열두 가게가 내년 3월까지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한 것. 열두 가게 주민들은 그 땅을 공동구입하려 시도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했다.

최정환 종로연대 실행위원장은 '이곳까지 왔고 현대식 빌딩이 지어지면 인사동길의 정취와 분위기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종로 살리기는 역사문화 환경을 이루고 있는 '작은 가게'들을 살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종로연대는 아직 원천한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터진 '복병'이지만 그동안 시민운동들 해온 경험을 모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인사동길 열두 가게 살리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7일 출범식 현장에서 이미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기존의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사모) 등을 주축으로 '인사동 작은 가게 사랑모임'을 조직, 전 단을 배포하고 10여개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행정적 협조도 요청해 놓았다.

한편 종로연대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인사동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도로 재포장·육의공고를 정비 등을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인사동 길을 정비, 역사문화탐방로로 조성할 계획. 그러나 종로연대는 현안을 외면한 거리정비는 임대료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자국, 작은 가게들의 생존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사동의 가장 큰 특징은 저마다 색깔을 달리하는 800여개의 작은 가게들인데 획일화된 정비는 곧 역사문화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위원장은 '길게는 한 자리에서 3대까지 이어오면서 독특한 환경을 만든 인사동 작은 가게들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생명을 불어넣는 허파같은 살림터. 그러나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앞에 전통과 역사가 사라져간다. 지나가는 거리에서 쉬어가는 거리로 바꾸어야 할 때. 더 늦기전에 종로의 정체성을 찾아 도시공동체로 만들겠다고 시민들이 나섰다. 종로사랑은 미래의 후손에 대한 사랑이다.

사동·가회동·청진동·건지동 등 종로의 독특한 역사적·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각종 '오염권'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이란 이름아래 층고가 쌓여 정감을 주던 사람들의 손패위에 회색빛 콘크리트가 칠해지고 무분별한 상업주의에서 나오는 알뜰한 상인이 아깝아금 종로를 끌어가기 시작했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시민들의 손길로 종로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로연대」에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도시연대·공동대표 김병기), 서울YMCA(회장 김수규), 조계사(주지 지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사전문문화보존회는 내부 의견을 조율중이다.

지난 7일 인사동 골목에서 출범식을 가진 종로연대는 「종로 선언」을 발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종로선언은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의 손으로 '서울의 개발', 종로를 지키고 가꿔야 한다.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어우러지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 경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동



산촌 골목



사동연옥 골목



경인미술관 뒷골목

기·리·탐·방

인사의 아름다움, 거리의 아름다움, 거리와 사람들의 만남



# 너희가 인사동을 아느냐

매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지 올해로 교박 3년. 그 사이 인사동은 국화꽃 같은 중후한 모습에서 새색시의 홍조 띤 얼굴로 바뀌고 있다. 통문관, 문우서림, 귀천은 건재하지만 크고작은 필방과 골동품 가게들은 하나들 사라진다. 제2의 부흥기를 맞았다는 인사동, 그러나 한쪽에서 '인사동을 살려달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박윤희 자유기고가





**일**요일. 차가 다니던 도로 곳곳에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라고 쓰인 진한 청록색의 대형 차일 20여 개가 설치되고, 차일마다 투호 던지기, 인절미 떡메치기, 유리공예, 자화상 그리기, 화가 임옥상의 '당신도 예술가'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인사동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고미술품 가게, 필방, 공예품 점포는 진열대 밖에서까지 하회탈, 옥 거북, 강정, 찻잔 등을 내놓고 손님맛이에 분주하다.

보도블록이 깔린 한쪽 도로에는 7~8명의 점쟁이가 돗자리를 깔고 한자리 차지하고 설탕을 불에 녹인 후 무늬를 찍어 파는 추억의 '뽕기' 장수도 보인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한 상인은 즉석에서 외국인 들뜰로 메뚜기와 개구리를 접어 팔아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 한다.

여러 사람이 뒤섞여 마구 떠들어대는 소리와 호박엿장수가 흔드는 가위소리, 여기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과 안내방송까지 가세해 일요일 인사동의 표정은 흥겹다 못해 번잡하다.

외국인들에게 '메리의 거리(Mary's Alley)'라고 불리는 인사동 주도로, 즉 종로 2가와 통하는 인사동 진입부에서 안국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인사동.

동 로터리에 이르는 길이 700여m, 폭 10~25m의 도로는 일요일 오후 1시가 되자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전통 공예품을 파는 통인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수를 세어보니, 1분에 평균 70~80명.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회장 이호재)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일요일 하루 동안 인사동 거리를 찾는 인원은 약 10만 명, 평일에는 4만~5만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 관광객은 일요일을 기준으로 5000명 정도. 평일에는 주로 화가 문인 대학생 청소년들이 인사동을 활보하는 데 비해, 일요일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연령층이 인사동 거리로 몰려든다. 특히 유모차를 끌거나 초등학교를 동반한 가족단위 외출이 눈에 띄게 많다.

돌 지난 아기를 안고 나온 주부 박은미(30·마포구 성산동)씨는 "딱히 갈 곳이 없어 왔다"며 "일요일은 주로 인사동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 재학생인 신동석(27)씨는 "학과 과제물을 제출하기 위해 전통차 디자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나왔다. 인사동에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신세대 취향의 홍익대 앞이나 압구정동 거리와는 색다른 점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데이트 장소로 인사동을 자주 찾는다"고 덧붙인다.

그렇다고 대학생이나 주부, 일반 서민들만 인사동 거리를 찾는 것은 아니다. 한 자리에서 1시간이 넘도록 사람 구경에 빠져있는 법음정사 혜연 스님(송파구 석촌동)도 "악다구니가 아니어서 이곳을 찾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인사동에 온 이유를





밝힌다.

실제로 인사동은 명동이나 압구정동과는 다르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공간이다. 각종 민속공예품이나 그림을 보려는 발걸음은 백화점에서 세일상품을 고르기 위해 쇼핑하는 걸음걸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여유 있는 표정' '느긋한 발걸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98년 종로구청이 집계한 사업자 조사에 따르면 인사동에 있는 800여 개의 점포 가운데 화랑, 지필묵 가게 등 전통문화 업종을 취급하는 곳이 총 621개 업소나 된다. 이 가운데 고미술품을 파는 가게는 172곳, 화랑 108곳, 표구사 87곳, 필방 85

곳, 도자기·공예품 32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통찻집 54곳, 전통음식점 83곳 등으로 분류된다.

이렇듯 다른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문방사우, 도자기, 전통한복, 고서적 등 전통 물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밀집해 있어서 인사동의 얼굴에는 단아한 고전미가 흐른다. 참빗이나 귀이개 같은 소품에서 조선시대 사방탁자에 이르기까지 인사동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품은 저마다 오래된 과거의 향기를 풍기며 사람들의 감수성을 자극하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사동 거리에서 느껴지는 고전미의 근원은 바로 이곳 토박이들이다.

### 인사동 토박이

## 통문관 이겸로옹(翁)

# 쓰레기더미에서 '3·1 독립선언문' 발견하기도

**통문관**이 인사동에 세워진 것은 1934년. 16세 때 가출한 이겸로옹은 인사동의 한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26세에 '금향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서점을 개업했다. 광복 후 지금의 '통문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93년까지 3만여 권이 넘는 고서적에 파묻혀 살다가 둘째 아들에게 책방을 넘겨주었고, 지금은 손자 이종운(30)씨가 가업을 이어받았다.

이겸로옹이 70년 가까이 장사하면서 책으로 엮은 통문관의 고객방명록을 보면 가람 이병기 선생, 일석 이희승 선생이 단골손님으로 자주 다녀갔고 윤보 김기창, 민영규(전 연세대 박물관장), 윤석오(이승만 대통령 비서) 등 한국



을 대표하는 식자들의 이름이 가득하다.

그의 통문관 인생이 집약된 '통문관 책방비화(민학회 발행)'를 보면 "70년대 말 하찮은 휴지더미 속에서 '3·1 독립선언문' 원본을 발견해 이대박물관에 보냈다... 1938년 가을에는 상해, 남북 만주, 시베리아 등에서 조선사람들이 활동한 독립운동 비밀문서를 입수해 하마터면 사정될 뻔한 독립운동

사를 손에 쥐었다. 그 대가로 일본 형사에게 끌려가 20일 동안 용산경찰서에서 유치장 생활을 했다"는 등의 일화를 담담하게 술화하고 있다.

이 내용은 70년 '신동아' 신년호에 '옛 생활의 유산' '문방사우'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 역사를 파는 가게

통문관(通文館)주인 이경로(90)옹은 70년 넘게 인사동을 지켜온 터줏대감. 10월 22일 이용을 만나기 위해 통문관 2층 상암산방(裳巖山房)으로 들어서자, 마침 '옛 우리 종이 생활전'이라는 고서, 고문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상암산방 내부에는 우리나라 종이 발달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옛 한지와 씨앗 종당이, 탕건집, 팔각 쟁반 등 옛 종이로 만든 공예품이 사방 벽과 유리 진열장에 가득하다.

“이 종이를 보세요. 빛을 받을 때마다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거리죠. 이게 바로 1604년에 만든 책인데요. 운모석을 갈아서 만든 종이를 사용했어요. 이걸 '일명 구름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블링 해보셨죠? 큰 그릇에 물과 물감을 담아 놓고 종이를 담그면 이렇게 화려한 구름무늬가 생긴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마블링 기법을 이용해 종이를 만들어왔어요.”

상암산방 연구원 이국강(59) 씨의 열띤 설명에 무심코 이곳에 들어온 40대 주부 세 명은 호기심에 가득 찬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거리다. 다시 이국강씨의 설명이 또랑또랑하게 이어진다.

“여기에 써 있는 글은 어떤 내용일까요? 조선시대 양반가문에서는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할 때 이렇게 사서삼경에 나오는 좋은 글을 일가친척들이 돌아가면서 써주어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돌잔치를 뷔페식으로 정신없이 치르지 않았죠. 이 제문을 보세요. 제사 때 아들만 제문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죠? 아님니

다. 시집간 딸도 친정 아버지 제사 때 참석해 이렇게 언문으로 된 제문을 따로 작성해 동등하게 제사에 참여했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남녀평등 문화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곳에 들른 사람들은 고서전시회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양반문화와 생활풍습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

상암산방의 '옛 우리 종이 생활전'에는 그동안 이용이 수집한 300여 점의 고서와 공예품뿐만 아니라 책을 새로 제본하느라 귀퉁이를 자른 한지조각까지 수십년간 소중하게 간직해 상설 전시장에 내놓았다. 관람객 수가 늘어나면 이용도 직접 나서서 율희 원년인 1907년에 발행된 '황성신문 구독료 영수증'까지 펼쳐두고 한문으로 적힌 내용을 읽어주기도 한다.



종로연대 출범행사로 진행된 '시민의 손으로 종로 그리기'.



(왼쪽 위) 쏟아진 인파로 혼잡한 인사동.  
 (왼쪽) 외국인들에게는 메리의 거리로 통한다.  
 (위) 차 없는 거리를 양옆으로 차지한 노점들.

### 고서점의 맥을 잇는 문우서림

73년 통문관 점원으로 취직한 김영복 (45)씨는 20년 가까이 이겸로옹과 한솔 밥을 먹다가 90년 3월, 통문관에서 옆어 지면 코 닿을 곳에 '문우서림'을 차려 독립했다. 곱슬거리는 단발머리에 역마살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은 곱팡내 나는 고서적과는 영 궁합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인상.

하지만 인사동에 자리잡은 10개 남짓한 고서점 가운데 김영복씨가 운영하는 문우서림에는 한국학의 대가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그의 감식안을 빌려 학문의 체계를 세운다. 통문관 점원 시절 만난 이희승, 남광우, 이가원 선생의 심부름을 하

가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이 그의 장사 밑천이 된 것은 물론, 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르고 손짓을 받을 만큼 한학의 박사로 통한다.

'이문학회' '민학회'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문우서림은 '글벗'들의 방문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유흥준 교수, 김지하 시인이 그의 중동고등학교 선배로 운이 좋으면 이곳에서 이들의 얼굴도 볼 수 있다. 간혹 김시인과 김영복씨는 인사동 골목 꼬트머리에 감추어진 '울력'으로 직행해 날새도록 술판을 벌이기도 한다. 문우서림에 들어찬 1만 권 남짓한 고서적 가운데 가장 비싼 책은 얼마나 할까?

김영복씨는 "가장 싼 책은 1만원부터 출발해 제일 비싼 책은 세종 때(1434년) 만든 동활자본 '초주갑인자'로 1000만원

선에서 흥정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기분이 좋으면 글벗과 스승에게 무료로 책을 보시하는 경우도 많다.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가 감옥에서 만나 몸으로 부딪친 한국 현대사를 배웠다. 노촌 이구영(79) 선생은 김씨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구영옹이 '산정(山頂)에 배를 매고' 등 출판기념회를 할 때마다 신교수와 김영복씨는 번갈아 축사를 하거나 사회를 보며 제자의 이름 값을 했다. 84년 '이문학회'를 창설한 노촌 선생은 조선조 중기의 4대 문장가 중 한 분인 월사이연구 선생의 후손으로 벽초 홍명희 선생을 사사한 한학의 대가이다. 그 또한 오랜 세월 인사동 일대를 거점 삼아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고가구를 만드는 화안가구 변경숙(64)씨도 간직한 자존심으로 조선시대 가구를 재현하며 평생을 살아온 인사동 토박이. 지금은 SK건설이 들어선 '이울곡 선생이 살던 집터'에 변씨의 일터가 있다. 처음 인사동에서 손을 댄 분야는 주로 고미술품.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옛날 물건에 대한 막연한 이끌림에서 고미술품 사랑이 시작됐다"는 변씨는 34세에 친구와 함께 인사동에 들어앉았다.

현재 변씨가 재현해 내는 조선시대 가구는 모두 100여 가지로 책장 사방탁자 장문갑 약장 함 등이 있다. 오동나무와 참나무를 주재료로 쓰고 색깔이나 장식도

### 거리의 유래

## 인사동은 어디인가?

관훈동 · 견지동 · 낙원동 · 공평동 · 경운동 등 거치는 인사동길

**인**사동 토박이로 꼽히는 이경로옹에서 부산 식당 조성모씨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실제 주소지는 인사동이 아니라 모두 관훈동으로 되어 있다. 인사동 고미술품 거리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관훈동, 견지동, 낙원동, 공평동, 경운동 일대를 편의상 인사동이라 총칭하게 된 것. 주소지에 따른 실제 인사동은 종로 YMCA건물 뒤쪽 일대를 가리킨다.

인사동(仁寺洞)이란 이름의 유래는 1914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한글학회(이사장 최현배)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총람 I(서울편)'을 보면 인사동의 지명 유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14년 4월1일, 부제 실시에 따라 이전 중부 관인방(寬仁坊)의 대사동(大寺洞), 원동(圓洞)의 각 일부와 견평방(堅平坊)의 이문동(里門洞),

향정동(香井洞), 수전동(水典洞), 승동(承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관인방(寬仁坊)과 대사동(大寺洞)의 이름을 따서 인사동이라 함.'

원래 대사동은 인사동과 관훈동에 걸쳐 있는 마을로 탑골공원 자리에 큰 절인 원각사가 있었으므로 댓절골 또는 한자명으로 대사동, 줄여서 사동이라 쓰이다가 인사동이란 지명에 흡수됐다. 이렇듯 인사동이란 동네 이름에는 옛 고을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사동에는 지금은 사라진 순화궁터, 이완대장터, 태화관터가 남아 있고, 인사동과 종로 2가에 걸쳐 있었던 마을 승동에는 과부 다섯 명이 모여 살았다는 오과붓골도 있었다고 같은 책에서 전한다. 현재 서울시 민속자료 제15호로 지정된 개랑한옥 '민익두가(家)'만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경인미술관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다.



인사동을 소개하는 각종 책자들이 늘고 있다.

전통 그대로 따르다 보니, 단순한 디자인과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문양, 백동으로 처리한 장식이 화안가구의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공방에서 5명의 목수가 전혀 못질을 하지 않고, 나무통편을 어긋하게 맞물려 단단하게 짜맞추는 전통 공법으로 가구를 제작한다.

사주단자와 합이 220만원, 서랍문갑 120만원, 책상 150만원으로 일반 가구와 비교했을 때 싼 가격은 아니지만, 한 번 구입하면 손때를 묻혀 가며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화안가구의 장점.

교수 기자 화가 미술평론가 등 지식인들이 주요 고객으로 홍익대 미술교육원 송수남 원장, 동국대학교 예술대 송영방 학장도 변씨가 만드는 가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아끼는 단골손님이다. 이렇듯 전통문화의 역사성, 희귀성을 통찰하는 조용한 안목이 있기에 조선시대 가구의 맥이 가까스로 단절을 면하고 있다.

### 해외동포들이 꼭 찾는 곳

해외동포들이 한국 나들이 때 자주 찾는 아원공방도 14년 동안 인사동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주로 촛대 거울 은장신구



등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아원공방의 주인은 노인아(44), 노인숙(41), 노인정(39), 노인자(35) 이렇게 네 자매다. 아원공방은 고미술품 가게는 아니지만 전통의 저리 인사동 분위기에 걸맞게 고전미와 현대미술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찬찬하게 만들어진 공예품은 물론이거니와 네 주인의 얼굴만 봐도 고단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인사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전통찻집 귀천일 것이다. 고 천상병 시인의 부인 목순옥(61)씨가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귀천은 여전히 신경림, 신봉승, 윤후명, 김성동 등의 문인들과 이장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이 단골손님이다. 그리고 매년 4월28일 천시인의 기일에는 70~80명의 중고생이 몰려와 목씨와 함께 천시인의 산소를 찾아간다.

요즘 목씨는 '천상병 시인 기념관' 단장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내년 봄이면 누구나 학교재 화랑 옆 건물에 마련될 기념관으로 '소풍'을 갈 수 있게 됐다. 귀천이 이곳에 자리하기 전 과연 이 소인국 같은 작은 공간에는 누가 살았을까? 예상밖으로 아이돌 스타 '서태지와 아이들'의 춤꾼이었던 양현석이 살던 집이라고 한다.

천상병 시인의 살아 생전 인사동은 '천시인의 거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는 생두부 한 모에 소주 서너 병을 깡술로 들이마신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천시인의 단골 술집이 바로 인사동 골목에 있는 부산식당. 이 식당에는 보온밥통이 따로 없다. 23년 동안 부산식당을 운영해 온 조성모(67)씨가 모든 손님에게 늘 갖



(왼쪽 위) 인사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도도 늘고 있다.  
 (왼쪽)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찻집 귀천.  
 (위) 고서적 가판대에서 책을 고르는 노인.

지는 밥만 상에 올리기 때문이다. ‘밥맛’ 만큼 후덕한 인심 때문일까. 조씨의 머리 속에는 대한민국 배고픈 화가들의 외상 장부가 수두룩하다.

### 강북부자들의 몰락으로 형성된 골동품가

인왕산 병풍바위와 치마바위를 바라보며 낡은 민익두가와 함께 삶의 풍상을 겪어온 인사동 토박이들. 이 사람들이 회상하는 인사동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변경숙씨가 들려주는 회고담 한 토막은 이렇다.

“6·25전쟁 이후에 서울 강북의 가회동, 재동에 사는 부자들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어요.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내다 판 양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도자기나

가구들이 인사동 일대에 꽤 쏟아져 나왔지. 일제시대에도 나인 출신들이 궁궐에서 내다 판 물건이 쌓여 양반거리인 인사동 일대에 고서화 가게 등 골동품 취급점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전쟁 후 강북 부자들의 급격한 몰락이 인사동 일대가 고미술품 거리로 자리잡는 데 일조했지요.”

원래 고려 말부터 인사동에 고미술품 거리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경복궁과 가깝고 양반동네였다는 지리적인 위치와 일제 강점과 6·25전쟁 등의 역사적인 혼란이 인사동의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6·25전쟁 이후로 인사동은 제1의 부흥을 맞게 된다. 인사동 주변에 외국 대사관이 들어서고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한국 고미술품에 환호하는



수요층이 증가한다. 특히 미국인들 사이에 고서화나 도자기를 구입하는 붐이 일었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국 언론에도 자주 보도됐다. 변씨의 말에 따르면 "메리의 거리라는 별칭도 이 때 생긴 것"이라 한다. 인사동 거리가 학자, 화가, 외국대사관 직원 등 심미안과 돈주머니를 찬 사람들이 활보하는 거리로 정착되어 갈 무렵, 조용하던 인사동에 새로운 바람이 몰아친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신분상승을 꿈꾸는 부동산 투기꾼, 졸부들이 인사동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숨기고 체면을 살리기 위해 이들은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손에 닿는 대로 고미술품을 사들였지요. 그때부터 인사동의 고급문화와 정신적인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면 최고'라는 생각이 격조 높은 미술시장을 잠식해 들어갔다고 봐야죠."

인사동의 품격이 떨어진 것을 개탄하는 변씨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인사동 문화는 결코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돼 온 것이 아니다. 정치와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맞물려 일정한 풍화작용을 거치며 변화를 거듭해 왔다.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광주요 인사동점.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등장도 예외는 아니다. 군사쿠데타는 이후 인사동에 돈벼락과 함께 천민자본주의의 논리를 무차별 살포했다.

"한국 5000년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온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 곳곳에 한국문화원을 짓기 시작했죠. 한국문화원에 들어갈 물품을 인사동에서 많이 구입했고, 저도 정부로부터 고가구 재현 프로젝트를 수주, 본격적인 가구 생산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변씨의 말처럼 여전히 신분상승을 꿈꾸는 신진세력이 새로운 군사정권과 함께 등장했고, 급기야 인사동의 유행을 주도하기에 이른다. 95년 인사동을 발각 뒤집어 놓은 '고서화 그림 위조단' 사건이나, 올해 6월 옷 로비 사건과 함께 불거진 신동아 그룹의 '그림 로비'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 누가 인사동을 망쳐 놓았나

이렇게 퇴적되어 온 황금만능주의의 병폐가 급기야 풀아터진 것일까. 요즘 인사동 토박이들은 전통과 현대의 길목에서 심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사동이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구청에서 3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 간판을 죄다 똑같은 색과 규격으로 통일 하라니요. 여기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 겠지만... 나름대로 오래된 맛이 있잖아요. 가로수 은행나무도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늘져 미우니까 싹 뽑아버리고 느티나무로 바꾸라니. 구청직원들 허튼 소

리 하길래 확 그냥 받아버렸어요.”

지난 10월22일 오후 1시 영빈가든. 점심식사를 겸해 인사동 상인 20여 명이 모인 자리는 다소 격양된 목소리가 여러 차례 오갔다. 식당 구석구석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는 한동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다.

이날 쏟아져 나온 상인들의 난상토론 내용은 크게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와 종로구청의 탁상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요약된다.

87년 '전통문화의 마을 보존회(초대회장 정혜동)'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인사동 상인들의 모임은 97년 1월 이호재(45) 회장 체제로 출범하면서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이하 보존회)라는 이름을 처음 갖게 됐다. 관훈동 가나아트스페이스와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대표로 있는 이호재 회장은

일요일 차 없는 거리 시행과 인터넷 카페 개점으로 인사동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초 인사동 대로에 인터넷 카페가 처음 들어섰다. 화랑과 필방이 밀집한 대로 1층에 'ARTSIDE, NET'이란 영어간판을 단 인터넷 카페의 등장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었다.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예하' '연' 등 작은 가게 3곳이 사라졌다.

고미술 거리 인사동의 인상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건물 1층에 찻집이나 음식점을 내지 말자는 것은 인사동 상인들의 암묵적인 합의사항. 이런 주장도 보존회 쪽에서 먼저 나왔다. 그러나 상인들과 한 약속을 무시한 채 전통 도시 구조를 지켜보자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존회에서 먼저 했다는 사실이 상인들을 자극했다.

한 상인은 “거리의 균형을 깨고 3층짜

## 볼거리

### 전통과 예술의 흔적이 묻어나는 인사동

#### ◆통인가게

1924년 문을 연 통인가게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인사동 일대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가게. 1층과 2층은 생활공예품을, 3층은 고가구를 판매하고 있으며 4층, 5층에는 고미술품 전시장이다. 주말에는 가게 마당에서 조선시대 임금님이 드셨다는 꿀타래를 만들어 팔기도 한다.

#### ◆아라가야

이나경 대표가 직접 쪽, 잇꽃, 소목, 처자 등을 이용해 천연염색을 들인 비단으로 한복을 만든다. 색과 선이 고운 전통한복과 개량한복을 만날 수 있으며, 이들 한복에 어울리는 지갑, 신발 등의 각종 소품도 천연 염색을 들인 것이 대부

분이다. 신부예복용 녹의홍상은 한 벌에 130만 원 정도.

#### ◆경인미술관

1983년에 개관한 미술관. 원래 박영호 대감택을 개조한 것이다. 3개의 전시실이 마련돼 있고 정원에 둘러앉아 수목과 조각품을 감상하며 차를 즐길 수 있다. 얼마전 원성스님 전시회가 열렸다.

#### ◆마야

인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미술가 정윤숙씨가 귀국해 최근에 문을 열었다. 인도에서 천을 날라다 직접 염색을 하고 디자인한 옷을 판매한다. 그 밖에 침구류, 쿠션커버, 가방 등의 다양한 소품도 대부분 주인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이다.



리 신식 건물을 짓더니 1층에 카페까지 만들었습니다. 이회장은 지금 인사동에 또 다른 고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이호재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대신 지난 10월29일 보존회 사무실에서 김병욱(55) 사무국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침체된 고미술 시장에 현대문명이 자꾸 침투해서 카페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려고 보존회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주도로에 이런 가게들이 생기는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했으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아쉽습니다.”

김병욱 사무국장은 5대의 컴퓨터가 설치된 인터넷 카페와 건물신축공사를 놓고 상인들 사이에 말이 많은 것도 안다며 이렇게 해명했다.

“카페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데,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세계문화를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호응이 좋지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기 돈으로 법을 통해 정당하게 허가 받아 하는 것인데, 남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죠. 회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호재 개인으로 봐야 합니다”라고 일축한다.

한 마디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대하는 가치관의 격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자본과 문화권력이 개입되어 있어 인사동의 내부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견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 최정한(43)사무총장은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인사동을 향해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다. 최씨가 한눈에 반한 인사동의 매력은 무엇일까.

“인사동에 처음 가도 쭈뼛거리지 않게 되는 친근감에 끌리게 됐습니다. 대리석으로 번쩍번쩍 장식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인사동에 있는 한옥, 골목길, 필지 등을 보면서 자만에 사람이 압도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때나 갑자기 생각나면 찾게 되는 길이죠. 무엇보다 자본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스케일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 ‘견고 싶은 거리’에서 내몰려

그래서 내린 최씨의 결단은 “인사동을 늘 견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씨의 ‘견고 싶은 인사동 만들기’ 1단계 작전은 ‘인사동 거리 활성화 방향과 과제에 관한 조사연구’로 나타났다.

이 연구보고서는 97년 이무용, 정선희 씨를 비롯한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석·박사 9명이 최씨와 함께 발로 뛰며 인사동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드러내는 성과를 담았다. 우선 이들이 인사동 상인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인사동 사람들의 고민을 잘 알 수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인사동 거리의 바람직한 이미지는 무엇이나?’는 질문에 전체 주민의 33.7%가 ‘전통의 거리’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30.1%, 관광명소 17% 순으로 답했다. 반면에 인사동의 바

람직한 이미지를 '현대적 거리' 라고 답한 상인은 1.8%에 그쳤다.

'인사동 거리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나?' 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7.7%가 골동품 및 옛 물건과 화랑을 가장 많이 꼽았고, 화랑가 26.1%, 거리 분위기 자체 18.5%, 전통음식점 7.2%, 전통한옥 5.1%, 역사유적지 4.7% 등으로 나타났다.

인사동 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물어본 질문에는 전체 상인들 중 29.7%가 거리특성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를 저해하는 신규업종의 증가를 들고 있다. 설문조사팀의 분석결과 "단란주점 및 술집, 노래방 등 유흥소비업종의 증가는 거리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인식을 상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특히 이 질문의 응답자 가운데 14.5%는 고층건물의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인사동 거리가 개발과 보존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채 과도기적인 혼란상태에 빠져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바로 이와 같은 인사동 상인들의 문제의식이 공론화되면서 보존회의 이호재 회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호재 회장의 경우 필지 2~3개를 합쳐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처럼 매장의 대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통물품을 취급하던 기존 1층 매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옛 물건과 고미술품을 파는 영세 화랑이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꼴이죠. 필지를 합친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세를 놓고, 여기서 번 돈으로 다시 건물을 사서 공사하

고... 이런 추세로 돈 있는 사람들이 인사동 땅을 몽땅 차지해 간다면 인사동의 미래는 밝아지지 않습니까."

최정환 회장은 덧붙여 97년 보존회에서 실시한 일요일 '차 없는 거리'가 인사동을 점점 더 상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면서 인사동에 시민들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보존회의 이벤트식 행사와 문화장터 개설로 인사동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때부터 인사동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기존 인사동의 분위기와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결합했습니다. 즉각 집세가 오르기 시작했고 소규모 세입자들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 돈을 가진 외부인들이 인사동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유흥업소가 들어서고 먹자골목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높은 세를 감당하며 인사동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차 없는 거리의 시행으로 소규모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형국이지요."

## 인사동을 살려달라

서울 타지역 상가와 마찬가지로 약 87%의 상점이 임대이고, 나머지 13%만이 건물 및 토지소유주와 실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이 일치한다. 도시연대의 방문조사 결과 '상인들의 96%가 상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인사동 문화를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인사동 조사연구에 참여한 전문 연구



(왼쪽위)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최장한 회장이 어린이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왼쪽)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의 거리사무실.  
 (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동의 인터넷 카페.

원들은 “그렇지만 상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사동도 지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아니나 다를까, 영세세입자들과 도시연대 연구원들이 우려하던 ‘재건축 바람’과 ‘상점대형화 추세’가 급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11월7일 찾아간 인사동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지난 10월, 안아무개씨 4형제가 함께 소유했던 한국음식점 영빈가든과 동서표구사, 아원공방, 보원요 등 12개 작은 점포가 일제히 다른 소유주에게 팔렸다. 동시에 12개 상인들한테는 ‘내년 3월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

발 붙일 곳이 없게 된 작은 가게 주인들은 생업은 뒷전이고 이제 거리로 나섰다. 금속공예품을 만들던 예술가와 그림 표구를 짜던 기술자가 ‘인사동 길 열두 가게를 살려달라’며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연대서명을 받기에 바쁘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차 없는 거리’였던 지난 11월7일, 서울시는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문화이벤트로 ‘인사동 고살 고싸움 놀이’와 ‘대동 줄다리기’ 등을 벌여 인사동 대로는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되었고, 다른 한 모퉁이에서는 ‘종로연대’가 출범해 ‘인사동을 살려달라’는 외침을 발하고 있었다.

일본에도 널리 알려진 장승조각가 신명덕(41) 씨는 몇 년 전까지 인사동 주민이었다. 1985년 인사동에 작업실을 마련

한 신씨의 소박한 꿈은 그가 만든 장승이 마을 어귀를 지키는 것처럼, 신씨도 인사동을 지키며 전통문화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인사동 장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씨의 꿈은 '정글의 법칙'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졌다. 문우서림과 마주보고 있던 그의 '장승방'은 97년 새로 들어온 카페에 밀려났다. 건물주가 외벽 신축공사를 하자마자 집세가 20배 가량 쯤쑤 뛰었기 때문이다. 집세가 오르는 다른 점포도 마찬가지로여서 신씨가 가진 돈으로 달리 구할 점포도 없었다. 화김에 유럽배낭여행을 떠나 보증금마저 날려 버렸다. 신씨는 지금 종로구 가회동 외판방에서 살림과 작업을 병행한다. 문인들이 자주 들르는 카페 '울력'에서 신씨를 만났다.

### 어설픈 전통이 인사동을 망쳐

"80년대만 해도 인사동은 창작의 거리였고, 여유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논리만 적용되고 있어요. 셋길마다 카페와 술집이 넘쳐나서 이제는 더 이상 술집이 들어설 자리도 없을 만큼 포화상태입니다. 구청에서는 이제 와서 유흥업소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미 내줄 것 다 내주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체불명의 인사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한 마디로 인사동이 싫어요."

신씨가 담배를 피워 무는 사이, 모과차를 탁자에 올려놓으며 울력 주인 이경숙씨가 옆자리에 앉아 말문을 연다.

"차 없는 거리 때문에 인사동은 망했어



인사동 전통제업의 하나로 떡을 치는 행인.

요. 그것 때문에 인사동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잡상인들만 늘었죠. 길에서 파는 물건도 우리나라 민속공예품이 아니라, 순전히 동남아시아 인도 캄보디아 중국 등지에서 가져온 액세서리뿐입니다. 보존회에서 이벤트식 행사만 했지 문화적인 이슈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일요일에는 아예 문 닫아버려요.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역한 친구 사이인 듯한 신씨와 이씨의 대화는 종로구청과 보존회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비난의 화살은 인사동을 찾는 시민, 이곳 상인들에게도 날아간다.

"인사동을 찾는 시민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럴 듯해 보여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속내를 보면 상업적인 공존인데 '전통'이라는 말에 지식인이건 시민이건 다들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차면 그냥 차지, 전통차는 또 뭐가. 전통이라는 말만 있지도 어디 전통이 일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나 있나요. 요즘 인사동에는 어설픈 전통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전통을 팔아먹는 알팍한 상술에 대한 변씨의 지적에는 요즘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음식점, 술집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



다. 인사동 어귀에 들어서면 이색적인 간판들이 눈에 띈다. '나의 남편은 나무꾼' '박씨 물고 온 제비' '머시 꺾정인가', '모기불에 달 끄슬릴라' '왕과 시' 등등 시적인 간판들이 시선을 끄는데 이런 유의 간판 제목 가운데 대다수는 한 사람이 작명을 하고 실내장식을 도맡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과 상술의 만남은 새로운 구매력을 자극하게 되고, 점차 인사동에 전통주점을 비롯한 새로운 소비유흥업종이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다. 인사동 화랑이 90년대 초에 비해 현재 100여 개가 줄어든 데 반해 유흥업소는 사라진 문화업종의 수만큼 늘어가고 있다.

### 관할구청도 속수무책

이런 현상은 인사동 상인들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 담당직원에게도 골칫거리다. 종로구청 문화진흥과 이수걸(47)과장은 "토지주는 조그만 땅에 성냥갑 같은 건물을 지어서 세를 받으려 하고, 화랑이나 필방 업소주인은 비문화업종으로 돌리려고 해 주민들간에 이해가 다르다. 더군다나 지금은 법의 뒷받침이 없으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인사동 대로에 '술집 낸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 막을 길이 없다"며 한숨을 토한다.

마구잡이 건물증축이나 유흥업소의 증가를 막는 법적인 강제성 없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사고와 사유재산권의 의미만 강조된다면, 앞으로 2~3년 후 인사동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다행히 인사동을 지키려는 일련

의 노력 덕분에 앞으로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인들과 관할 행정공무원들의 표정은 밝다.

지난 10월8일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해 연말 국회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개정취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달라질 주요내용은 ▲문화지구 내에 설치가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등의 감면 ▲특색 있는 문화지구 조성을 위해 문화지구 내의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문화지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저해하는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 당시의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일각에서는 '뒷북친다'는 코웃음도 있지만, 그나마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함정도 분명히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 자치 능력을 상실한 채 행정과 법이 문화에 개입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올해 25개 구청에 '시범가로정비구간' 선정을 명령했다. 각 구에서 1개 구역을 '걷고 싶은 거리' '문화의 거리' 등으로 선정해 간판을 새로 정비하고 특색 있는 거

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다.

## 개발에 쫓긴 문화철거민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문화의 거리를 완성한 곳은 관악구와 광진구. 이 가운데 관악구는 강감찬 장군의 사당이 모여진 '낙성대' 진입로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정해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도로 확장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 낙성대 입구에서 서울대 후문으로 향하는 길이 완전히 난도질당했다. 비록 도로를 끼고 걷는 길이었지만 낙성대나 관악구민운동장, 약수터 등으로 향하는 길은 도로 오른편으로 개나리 더미가 늘어서 있어 오솔길을 걷는 듯한 푸근함을 안겨 주었고, 이 길은 알게 모르게 주거 환경이 척박한 봉천동 주민들 사이에서 명소로 통하는 '걷고 싶은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봄에 개나리 피고 여름에 푸른 잎 속삭이던 '개나리 길'이 사라지고 도로만 넓어졌다. 더이상 '걷고 싶지 않은 길'로 전락했다. '개발'이 곧 '문화'라는 발상이 저지른 아찔한 참상이다.

인사동도 낙성대 길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인사동 전통의 거리도 종로구청이 특별히 간택한 시범가로정비구간이기 때문이다. 한 상인의 외침처럼 '지금 와서 특색 없다고 뽑을 은행나무는 왜 심었으며, 느티나무가 되었건 밤나무가 되었건 다시 심어진 나무가 향후 뽑히지 말란 보장'이나 있는 것일까. 수백년간 퇴적되어 온 전통을 하루 아침에 깡그리 밀어버리고 새 단장을 하는 것이 전통을 보존하는 최선의 수단은 아니다.

그런데도 종로구청은 인사동의 모든 간판을 '고풍스러운 새 간판'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 결정은 올 5월부터 추진되었으나 완료시점인 12월을 앞두고도 업무 추진상황표는 백지다. 종로구청이 나서서 '한 업소당 2년 거치 3년 상환 무이자로 300만원씩 용자를 알선해 준다'고 해도 인사동 상인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상인들의 반응에 대해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광고관리물 정동해(50) 계장은 "인사동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전통의 거리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면서도 반대여론을 예상했다. 막상 주민공청회를 해보니 생각보다 주민들의 반발이 훨씬 심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제성을 띠더라도 추진하러지만, 요즘 장사도 잘 안되는데 자기 돈을 들이려 하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인사동 주민들의 반발은 결코 돈 문제만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간간한 자존심과 전통문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집이 인사동 토박이들의 공통점이다. 간판도 한 시대의 문화다. 무엇보다 문화는 다양성 속에서 성장한다. 그런데 행정편의주의에는 획일성만 있지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세월의 흔적과 사람의 손때가 묻어나야 고전미가 서리는 것이지, 무턱대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차용한다고 해서 전통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동 상인들이 '확 받아버리겠다'고 성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인사동 길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사업구간 안에 지하시설물인 하수암거 공



## 먹을거리

# 인사동 구경도 식후경, 손맛 우러나는 식당

### ◆뫼마루집 (739-5683)

시인 박중식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주로 문인들이 자주 찾는다. 가장 특색 있는 음식은 4500원에 먹을 수 있는 된장비빔밥. 대바구니에 나오는 부추 등의 야채와 쇠고기장조림, 갓은양념을 넣어 끓인 된장에 밥을 비벼먹는 맛이 일품. 자타가 '된장예술'이라고 말할 정도로 장맛이 뛰어나다.

### ◆자유부인 (738-5110)

60~70년대 촌스러운 물건과 인테리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술집. 각종 영화포스터와 소품들이 벽면에 가득하다. 찜장어, 삼겹살, 주물럭 등의 안주가 술잔을 못 놓게 한다.

### ◆송죽 (736-3700)

인사동 일대에 이름난 죽 전문점. 전복죽, 야채죽, 버섯죽, 굴죽, 인삼죽, 잣죽 등을 다양하게 맛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야채죽이 3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최고가 음식이 전복죽으로 값은 7000원. 전복을 잘게 썰어 달걀흰자를 풀어 끓인 다음, 노른자는 약간 덜 익은 상태로 죽에 얹어 주는 것이 특징. 최근 섬진강 재첩을 넣어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재첩죽을 매뉴판에 추가, 술꾼들의 속풀이용으로 인기.

### ◆갯마을 밀밭집 (737-0229)

서해안 바지락을 듬뿍 넣은 칼국수 전문점. 칼국수에 넣어 먹는 고추 다대기가 칼국수의 독특한 국물 맛을 살려준다. 숙주를 넣어 만든 찌만두와 기본반찬으로 나오는 배추 겉절이도 젊은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인기. 식사시간이 따로 없을 만큼 늘 사람들로 붐빈다. 칼국수 4000원, 만두 4000원.

사와 도로 가로정비공사를 12월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의 차 없는 거리 시행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인사동 개발은 제동장치가 풀린 채 이미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세계화라는 허위 의식 아래 저질러지는 개발은 인사동의 전통문화 훼손과 함께 임대료 상승을 불러일으켜 결국 인사동 토박이들을 쫓아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과 맞물린 상흔, 개발이 곧 세계화라는 발상 앞에서 인사동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악다구니 소굴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기 3년 전의 과거로 인사동 시계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왜 인사동을

찾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새겨보면 답은 명백하다. 94년 서울시에서 선정한 '서울을 만들어온 사람들' 명단에는 세종대왕, 황영조 선수와 함께 통문관 이겸로 옹의 이름도 나란히 들어 있다. 이겸로 옹을 비롯한 인사동 토박이들은 인사동과 더불어 서울의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들이다.

앞으로 '문화 철거민'이 되지 않으려면 토박이를 내쫓는 개발지상주의보다는 '옛 우리 종이 생활전'과 같은 '본토박이 정신문화'를 살리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전통문화예술의 세계화는 변칙거리는 외형이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인사동 토박이의 세계화, 예술가의 세계화, 곧 사람의 세계화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5**

# ‘차 없는 거리’를 실현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개

발이나 보존이나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던 서울 인사동길 경관의 핵심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영빈가든(한식점)과 그 주변의 땅(관훈동 50번지 일대·103쪽 지도 참조)이 최근 한 개발업자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영빈가든 외에 동서표구(표구상)·아원공방(공예품점)·사보당·보원요(도자기점) 등 인사동을 상징하는 이른바 ‘작은 가게’들이 몰려 있다.

문제의 땅은 원래 국내에서 손꼽히는 출판사인 박영사 인증만 사장의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을 최근 인사장으로부터 매입한 곳은 법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정채 불명의 건설 회사(○건설)이다.

## 상인들의 공동 매입 제안 묵살 당해

안씨와 건설업체 사이에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해당 상인들은 ‘인사동 작은 가게 사람들 모임’을 만들어 땅 매매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 재고’를 호소하고 있다.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문제의 땅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상인들은 10~20년간 정든 인사동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자칫 개발업자의 욕심에 의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영빈가든 일대 땅은 모두 합쳐 4백50평 정도이다. 그 중 3백50평을 영빈가든이 한덩어리로 빌려 쓰고 있으며, 나머지 백평은 가게 건물 10여 개로 쪼개진 상태이다. 얼핏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규모처럼 보이지만, 땅의 소재지가 인사동길이라는 점으로 시각을 좁히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땅은 인근 경인미술관 터(옛 박영효



인사동 살리자·인증만씨가 소유했던 땅이 팔리자 인사동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문화 현실

# “벼랑 몰린 인사동 허리 끊어질라”

## 노른자위 땅 건설업자에 팔려... 무분별한 개발 우려

대감집)와 더불어 단일 필지로는 인사동 일대에서 가장 크다. 지주 대부분이 이곳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수십 평 단위가 고작이어서, 작은 가게 8백여 개가 빼곡히 들어찬 인사동길 특유의 경관에 이 땅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은 한때 ‘경찰국장’으로 알려진 윤기병씨

일로 잡혔다. 이는 지난 9월 시점에 안씨와 건설업체 간 매매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암시하는 예이다.

이 때부터 안씨 땅에 세 들어 사는 ‘인사동 열두 가게’ 주인들이 공동으로 대안 찾기에 나섰다. 그 결과 문제의 땅을 세입자가 공동으로 사들여 현재

소유였다가 약 20년 전 인증만씨의 선친이자 박영사 창립자인 안원옥씨가 매입했다. 세입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안씨와 세입자는 지금까지 줄곧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안씨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비교적 헐하게 매겨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세입자는 이에 화답해 임차료를 연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까지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안씨 땅에 세든 이웃들을 두고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안씨와 세입자의 밀월 관계는 지난 9월 막을 내릴 위기에 처했다. 9월에 안씨가 사람을 보내 세입자와 임대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만약 땅이 팔리게 되면 가게를 비워 달라’는 조항을 넣었던 것이다. 계약조건에 직접 삽입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가게를 비울 날짜는 2000년 3월 31



작은 가게 주인들: 정든 인사동을 정채 불명 건설 회사에 빼앗길 수 없어, 공동으로 땅을 매입해 원래대로 보존하려고 힘을 모았다.

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자 가게를 운영해 보자는 안이었다. 매마침 영빈가든은 대전 부근에 땅이 있어 이를 팔면 땅 매입 자금(전체 규모 1백10억원)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문제는 이들이 재값을 쳐주고 땅을 사겠다는데도 안씨가 이를 거절한 데 있다. 세입자들은 영빈가든을 중심으로 박영사의 담당 이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기왕 땅을 팔 요량이면 자기네들에게 넘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안씨측은 '잔금 결제(45억원 가량)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다. 결국 협상은 깨지고 안씨는 건설업체와 손을 잡았다.

### 시민단체도 '열두가게 살리기' 나서

지난 10월께 0건설과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안씨측은 '매매 계약은 사유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매각을 담당할 박영사 말 정 아무개 이사는 매매 계약을 맺은 이후 '휴가'를 이유로 아예 자리를 비웠다.

안중만씨 땅이 팔렸다는 소식이 인사동 바다에 알려지자 땅 매각 문제는 인사동 전체의 문제로 번져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땅은 안국동에서 종로동으로 이어지는 인사동길 허리 부분이다. 이곳에 규모가 큰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면,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서울의 개펄'이라고 불리



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계획에는 인사동 입구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인사동길을 대대적으로 보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인사동 사람들은 이같은 계획이 궁극적으로 인사동을 해체시키리라고 걱정하는 것이다.

'견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도시연대)·종로연대 등 시민단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열두 가게 살리기' 서명 운동을 상인들과 공동으로 벌이고, 서울시 관계자를 찾아가 '적극 중재'를 요청하는 등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이다. 도시연대 최정환 사무총장은 인사동 경관 보존을 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의 자존심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전통 문화 거리를 자본의 논리에만 내맡겨 없애 버린다면, 이는 문화 시민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인사동길은 '차 없는 거리' 실시 이후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씨 땅 건너편은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낡고 오래된 옛 단층집들을 밀어내고 주인 노릇을 한 지 오래다. 인사동 사람들은 특히 이처럼 '좋지 않은 변화'가 바로 가나화랑·박영사 대표 등 명색이 인사동 출신이고, 한국 문화 산업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에게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도 분노하고 있다. 인사동에서 미술품 매매로 성장한 가나화랑은 인사동 입구에 '합필(合筆) 개발' 방식으로 현대식 건물을 지어 인터넷 카페 등을 들인 외에, 최근 인사동 네거리 가까운 곳에 또 다른 고층 빌딩을 올려 주변 상인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빚었던' 안중만씨마저 세입자들의 제안을 뿌리치고 건설업자에게 땅을 넘긴 것이다. 인사동의 운명은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의 땅’ 가운데 붉게 표시된 부분이 최근 건설업자에게 팔린 땅이다. 인사동길의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

는 인사동길의 허리가 끊길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당사자라고 할 인사동 열두가게는 물론이고, 이웃 상인과 시민단체들도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 11월9일 '인사동 제 모습 찾기 모임'(가칭)이 발족된 것도 한 사례이다. 문제의 열두가게 외에 공화랑·관훈갤러리·문우서림 등이 참여하는 이 모임은, 발족을 즈음해 안중만씨 땅 매각 사실에 격정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모임은 오는 11월 말부터 내년 8월까지 시행될 '인사동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공사'에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





**경고심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전화: 332-6044/팩스 332-6010  
인터넷홈페이지: [WWW.dosi.or.kr](http://WWW.dosi.or.kr)  
e-mail: [dosi@dosi.or.kr](mailto:dosi@dosi.or.kr)